한리일보 🔭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윤곽'

도, 25일 JDC 도민참여 확대 등 포함 과제안 설명회 내달 도의회 제출… "국회 계류 6단계 통과도 노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 추진 계획의 윤곽이 그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7년부 터 국회에 계류 중인 6단계 제도개 선의 반영 노력과 함께 진행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복안이다.

제주도는 오는 25일 오후 3시 제 주연구원 3층 대강당에서 7단계 제 도개선과제안 도민설명회를 개최한 다.

토론회에서는 7단계 제도개선 주 요내용 설명과 전문가 7명의 토론이 마련됐다.

제주도 개선과제안을 보면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대 한 도민참여 확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기능 강화 ▷도내 보세판 매장 매출액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개 선 등 30개 과제가 추진된다.

JDC에 대한 도민참여 확대 방안 은 국토부와 제주도와 함께 도의회 와의 협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담는

또 도내 보세판매장 매출액에 대 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과제는 6단계 제도개선에 포함됐지만 제외된 과제 다. 지정면세점을 포함한 도내 보세 판매장 특허수수료를 제주관광진흥 기금 재원으로 활용해 제주관광 발 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만, 6단계 제도개선에 제외됐던 만큼 중 앙 절충과 논리 강화 등의 노력이 필

요해 보인다.

이밖에도 ▷관리보전지역 해제 관 련규정 개선 ▷지하수에 영향을 미 치는 굴착행위에 대한 특례 ▷가축 분뇨 배출시설 등 지하수오염 유발 시설 확대 지정 ▷카지노업 허가의 공고에 관한 특례 ▷카지노업 갱신 허가제 도입 특례 등이 담겼다.

종 합

제주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도개 선과제안에 대한 도민과 이해관계자 들의 의견 수렴을 하고 10월 회기 중 도의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제주도지 원위원회로 제출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특별법 6단 계 제도개선과 동시에 대중앙 절충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라며 "현재 7 단계 제도개선 과제 정리를 마무리 하는 단계이며 도민 의견 수렴 후에 는 보다 내용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이소진기자 sj@ihalla.com



1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소통 부족 행정, 도민 불안감 키워"

김태석 의장, 어제 임시회서 추석 민심 전하며 도정 비판 JDC 이관 공론화 필요 제기

지역 현안 찬반갈등과 더불어 경기 침체와 지하수문제 등으로 도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지만 행정이 해소 대 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는 쓴소리가 나왔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18일 열린 제37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 회사에서 "지난 추석명절 기간 동안 제주도민들의 민심을 듣고 들으며

하나의 집약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 었다. 바로 '불안'이었다"며 "도민들 은 정확한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찬 성과 반대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기 에 그 결과가 가져올 상황에 대해 극 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벌써 14년 전 기초자치단체의 폐지 여부 를 결정할 때부터 지금까지 강정 해 군기지에 대한 찬반, 행정시장 직선 제 추진 찬반,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반이 그러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김 의장은 하락세를 보이 고 있는 제주경제와 제주의 생명수 인 지하수 문제가 도민들의 불안을 악화시키고 있다고도 했다.

김 의장은 "이러한 도민들의 불안 을 잠재울 대책은 누가 준비하여야 하며, 누가 추진해야 하나. 바로 행 정. 제주도정"이라며" 그러나 그 책 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라고 일갈했다.

김 의장은 이에 대한 근거로 비대 해진 조직 대신 부족해진 소통, 만연 한 현장 무시 풍토 등을 꼽았다. 김 의장은 "어렵게 지사를 만나 건의사 항을 간곡히 전달해도 그때 뿐이라 는 도민들의 한탄이 들려온다"며 원 지사를 향해 일침을 날렸다.

송창권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 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의 본격적인 제주 이관을 위 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매년 선정만 하고 끝?… 명예도민 역할 늘린다

도, 정책 참여 기회 등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명예도민을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분야별 정책자문 및 강사로 활용하는 등 제주도정 정 책에 적극 참여시키기로 했다고 18 일 밝혔다.

도는 그동안 매년 증가하는 명예 도민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도의회 및 여 론의 지적이 제기되자 이를 개선하 기 위해 지난 3월 '명예도민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5개월여 동안 1800여 명예도민을 전 문분야별로 분류화 작업을 거쳤다.

도는 지역·분야·직업별로 분류 구 축된 명예도민 자료를 바탕으로 향 후 도의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 촉을 추진하는 한편 분야별 정책자 문 및 강사로도 적극 활용해 나갈 계 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명예도민 정책방향이 확대에 있었다면 앞으로 는 확충→예우→활용이라는 균형을 이루면서 명예도민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10월 2일 '2019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내달 2일부터

여야 원내대표 일정 재조정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열 리는 국정감사 일정이 10월 2일부터 21일까지로 조정됐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8 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으로 정기국회 초반 파행이 빚 어짐에 따라 새로운 정기국회 일정 에 잠정 합의했다.

당초 9월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 로 예정됐었던 국정감사는 10월 2일 부터 21일까지 열린다. 이에 따라 가 장 먼저 국감 일정을 수립한 행정안 전위원회의 국감 일정도 조정될 전

대정부 질문도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미국 방문 일 정(9월 22~26일)에 일부 장관들이 동행하는 만큼 일정이 연기됐다.

오는 26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27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30일 경 제 분야, 10월 1일 사회·문화 분야에 대해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 부의 시정연설은 기존 합의대로 오 는 10월 22일 청취하기로 했으며, 교 섭단체 대표연설은 10월 23일 이후 에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여가원 '제주여성국제포럼' 25~27일 세미나·문화투어 등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제주한라대 한라컨벤션센터에서 개원 5주년 기 념 2019 제주여성국제포럼을 연다.

행사는 25일 오후 5시 '교류의 밤'을 시작으로 26일 '국제학술세미 나', 27일 '제주여성역사문화투어'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25일 행사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오은지기자 교수이자 아시아여성학회 회장인 김 은실 교수가 '아시아 여성의 일, 발 전, 성별정치'라는 주제로 기조발표 를 한다.

26일에는 본격적인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호주 웨스트시드니대학교의 캐서린깁슨 교수가 '다양한 경제 방 식들:지역 공동체의 변화를 위한 연 대'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진행한 다. 또 1세션은 '여성의 일, 역사문화 와 공동체', 2세션은 '해녀의 일, 노 동과 문화의 경계', 3세션은 '글로컬 시대, 여성의 일과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이소진기자

2공항 공론화 놓고 또 각 세운 도-의회 원 지사 '불가' 입장에 "특별위 구성"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에 대한 도 민 공론화를 요구하는 1만인 청원서 가 18일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가운 데 이날 개회한 제376회 임시회 회 기중 처리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 목된다. 하지만 원희룡 지사는 이날 '공론조사 불가' 입장을 재천명했다.

원 지사는 이날 열린 제주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동2동갑)의 제2공항 관련 합리적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도정의 입장 을 물은 긴급 현안 질문에 "그동안 설명회, 공청회 등 숱하게 반복돼왔 고 현재는 제주도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하고 기본계획 고시하는 단계 라며 "이 단계에 와서 최종 의사결정 을 공론조사로 가겠다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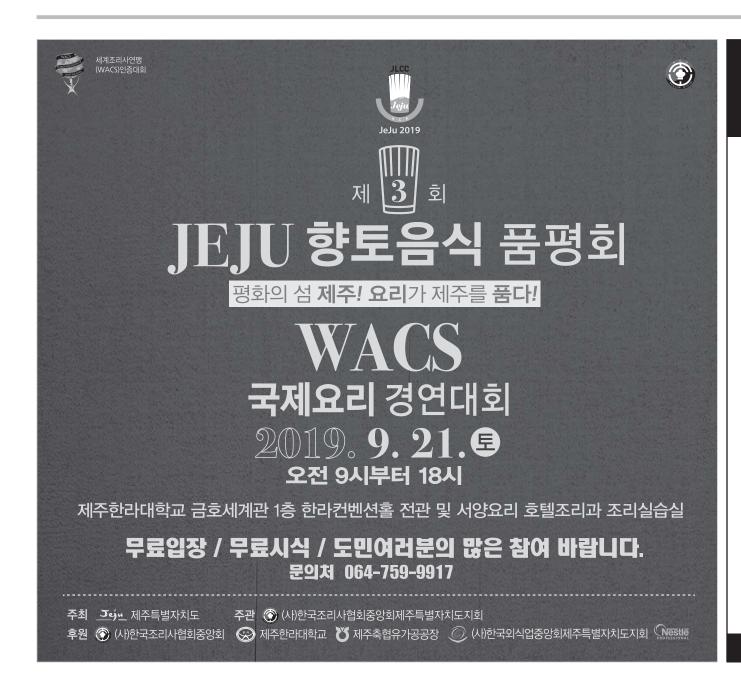
앞서 홍 의원은 "오늘(18일) 1만 여명이 넘게 참여한 제2공항 공론화 조사 요구 청원이 들어왔다"며 "이 청원을 의회가 집행부로 넘긴다면 청원을 받아서 공론조사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관련해 김태석 의장은 현안질문이 끝난 후 "지사께서 답변 중 이 시점 에 공론조사는 시기적으로 안 맞다 고 했는데, 저는 올해 초부터 공론조 사를 요청해왔다"고 지적했다.



18일 본회의에서 홍명환(오른쪽) 의원이 원희 룡 지사에 질의하고 있다. 사진=도의회 제공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회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후 의원총회 를 갖고 제주제2공항 강행저지를 위 한 비상도민회의가 제출한 '제주 제 2공항 문제에 대한 도민 공론화를 요구하는 1만인 청원'처리 방향을 논의한 끝에 이번 임시회 중 처리하 고,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로 결의했다. 오은지기자



「2019 제주농협 귀농·귀촌교육」 교육생 모집

「제주농협 귀농·귀촌교육」 개요

- 교육기간 : 2019. 10. 11(금) ~ 11. 20(수) / 12회차 ▶ 주 2회(수·금), 매회 4시간(14시~18시), 60시간 과정
- ▶ 현장학습(3회): 9시~17시
- O 교육장소: 농협제주지역본부 대회의실(제주시 서사로 56)
- ㅇ 교육내용
- 정책분야: 제주 귀농·귀촌정책, 농업창업자금 지원절차 등 - 영농기술: 과수, 전작, 토양·비료, 친환경농업 등
- 마 케 팅: 농산물 유통 및 마케팅, 농어촌관광 및 6차산업 등
- 인 문 학: 제주 역사·문화·향토음식, 농업가치 등 - 현장학습: 역사·문화 탐방, 감귤수확실습 등
 - -모집요강-

1. 모집인원 : 80명

2. 모집기간 2019. 9. 25(수) ~ 9. 27(금). 09시 ~ 17시

3. 지원자격

귀농인 및 예비 귀농 • 귀촌인 ※ 단, 제주농협에서 주관하는 동일과정 기수료생은 신청불가

방문접수(비치된 수강신청서 작성) 🖝 전화접수 불가

5, 선발방법 : 선착순 (조기마감 가능)

무료(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농협에서 교육비 지원) 7. 접 수 처

농협제주지역본부 농촌지원단(제주시 서사로 56, 2층)

문의사항: 농촌지원단 (☎720-1220~5)

